

곡성군, 멜론·토란 산업화 본격 시동

6차 산업화지구 조성사업 추진...고부가가치 상품 가공

‘2015 농식품 파워브랜드’ 대통령령상에 빛나는 곡성멜론(기차타고 멜론마을)은 명실공히 전국 최고의 농산물 브랜드로 꼽힌다.

곡성멜론은 300여 농가 180ha에서 연간 5,400톤(생산액 183억 원)이 생산되고 있다.

곡성멜론의 오늘날 성과는 결코 우연이 아니며, 그동안 맛좋은 멜론을 생산하기 위한 농가와 곡성군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멜론의 생육환경에 알맞도록 노후하우스를 내재해형 신규하우스로 교체하고 자동화 시설개선 등의 생산기반을 확충했다.

또 무엇보다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시설하우스 벼 윤작과 토양소득에 의한 흙살리기 사업은 오늘날 전국 최고의 멜론을 생산하게 된 밑거름이 됐다. 그 뿐만이 아니다.

멜론 생산자단체 스스로의 규정으로 2~3종의 고품질 품종만을 지정해 재배토록 하고 있으며, 당도측정에 의한 판단으로 수확시기를 결정하는 등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향이 뛰어난 멜론을 생산하기에 알맞은 곡성의 기후특성도 한 몫 했다.

예년의 곡성멜론 첫 출하 시기는 6월이었으나 지난해부터 더 일찍 수확할 수 있게 된 것은 다겹 보온커튼과 난방시설 등 멜론 조기재배 시설 개선으로 정식시기를 앞당겼기 때문이다.

이 같은 곡성군의 멜론 조기출하 지원 정책의 효과로 앞으로 난방시설개선 사업이 더욱 확대되면 본격 출하기간이 기존의 4개월(6~9월)에서 7개월(5~11월)로 늘어날 것 전망이다.

이에 따라 멜론 재배 농가에서 당초 6월에서 5월로 출하시기를 앞당겨 높은 가격에 출하할 수 있게 될



‘2015 농식품 파워브랜드’ 대통령령상에 빛나는 곡성군은 멜론과 토란 생육환경을 위해 노후하우스를 내재해형 신규하우스로 교체하고 자동화 시설개선 등의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출하기간이 9월에서 11월까지로 연장되면서 연간 멜론 1기작에서 2기작 재배로 확대돼 농가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곡성멜론은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고 브랜드로서 그동안 국내 출하와 해외 수출을 병행해 왔다. 하지만 수출의 전제조건은 수출단가가 국내 가격보다 높아야 한다는 점인데 곡성멜론의 경우 국내가격이 높은 편이어서 그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 있다.

더구나 지난 수년간 주로 대일 수출에 전념해 왔으나 엔저의 영향으로 농가의 수취가격이 낮아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지난해부터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수출 길을 열었는데 간혹 수출단가가 국내 가격에 비해 낮을 때도 있지만 당장의 이익보다 앞으로 국내 가격 하락에 대비한 포석

이다. 또한 동남아에서는 국내에서 하품으로 여기는 상자당 6수용(개당 1.3~1.4kg)의 가격이 5수용과 별 차이가 없다는 장점 때문이기도 하다.

올해는 고온기 연작장애 방지를 위한 시설하우스 성토사업 및 난방 시설 지원을 위해 국비 5억여 원을 확보하였으며 군비와 자부담까지 총 15억원의 사업비로 멜론 생산성향상을 물론 생산시기를 4월부터 12월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부터 3년에 걸쳐 총 사업비 30억 투입해 ‘기차타고 멜론마을 융복합지구’ 2018년 6차 산업화지구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해 주민 소득증대 및 곡성멜론의 부가가치를 높여갈 계획이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는 곡성토란. 최초로 토란에 색을 입혀 들깨 토란탕, 토란대육개장, 토란완자탕, 토란빵, 토란버블티, 토란루

키 토란음식을 발굴해 곡성에 가면 쉽게 토란음식을 맛 볼 수 있다.

곡성의 토란 재배면적은 100ha로 전체 재배면적의 절반을 차지하는 규모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는 토란을 주로 명절 음식 등 자가소비용으로 재배하는 것에 비해 곡성에서는 출하용으로 재배한다.

따라서 곡성토란이 수도권에서 유통되는 토란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토란 소비는 명절에 한정되어 이전에는 추석이 지나면 토란 가격이 급속히 하락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추석 이후 가격이 오히려 올랐다.

그것은 수차례에 걸친 마스크 홍보로 토란이 명절차례상이나 제사 위주 소비에서 벗어나 건강식품으로 인식되어 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곡성=이상석 기자

“신대지구 지구단위계획 공청회 필요”

임종기 순천시시장, 신대지구 중학교 등 현안 문제 강조

순천시의회 임종기 의장은 신대지구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 실시 요청’ 공문을 순천시에 발송했다.

임종기 의장은 지난 10일 발송한 공문에 “현재 삼산중학교 이전 부지가 항매로 북쪽으로 결정됨에 따라 신대지구 북쪽에만 승평·삼산중학교 두개의 중학교가 위치하는 불균형을 조래하고 있어서 항매로 남쪽에 중학교가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향후 신대지구 및 선월지구의 중·고등학교 수요증가에 따라 이설되는 삼산중학교를 고등학교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삼산중학교 이설 시 고등학교 시설 기준으로 건립할 것을 전남도교육청에 건의하였으나, “향후 중학교 추가 신설 및 고등학교 전환 계획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임종기 의장은 “지난



2013년도부터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공청회 실시요청 공문 등 수 차례에 걸쳐서 신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 개최 필요성을 끊임없이 주장했고 공청회를 개최해 줄 것을 순천시에 줄기차게 요구 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신대지구 중학교 위치문제, 외국인 교육기관 건립부지 문제, 항매로·좌야로 등, 주간선도로 확장문제, 공공시설 유치분제를 비롯한 누적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천=조순의 기자



구례군은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8 설맞이 명절선물전’에 구례산수유영농조합과 (주)지리산특용작물재배팜·프리농이 참가했다.

/구례=제공

구례군, 산수유 지리적표시특산물 홍보

겨울철 피로회복·면역력 기능 강화 탁월

구례군은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8 설맞이 명절선물전’에 구례산수유영농조합과 (주)지리산특용작물재배팜·프리농이 참가하여 구례군 지리적표시특산물 산수유 홍보·산수유 제품 판촉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2008년 지리적표시 인산물제 15호로 등록된 구례 산수유는 주로 산기슭 등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지리·지형적으로 일교차가 커 과육의 육질이 단단하며, 단맛보다 신맛과

쓴맛이 강하기 때문에 겨울철 피로회복, 면역력 기능을 강화하는 한약재로 많이 사용되어 왔다. 최근에는 추출음료, 엑기스(발효청), 젤리, 잼 등 다양한 제품으로 활용되고 있다.

산수의 품질, 명칭, 특성 등이 근본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비롯되는 경우 지역의 생산품임을 증명하고 표시하는 제도인 ‘지리적표시제’는 농산물 및 가공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했다.

/구례=오광범 기자

광양시, 올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1인당 1만 원 지원...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나서

광양시는 올해부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자질 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했다.

그러나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회복지사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사비로 부담해 왔었던 실정이었다.

이에, 시는 전남에서는 두 번째로 올해부터 1인당 1만 원의 보수교육비를 지원해 사회복지사들의 교육비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그동안 시는 2013년 6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국에서는 두 번째로 사회복지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업무나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을 보장해주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 2,500명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61건의 상해로 1천8백3십

여만 원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사회복지사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재우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이번 보수교육비 지원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되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3D 구현 내부, 외부 영상 제공

전원주택 · 조림식주택 홈인테리어 · 상업인테리어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로 104
채움건설 010-6265-0057

사랑과 행복이 짝트는 공간!
소중한 나만의 공간!
웃음이 넘쳐나는 공간!
채움건설이 만들어 가겠습니다.